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기 연(물푸레복지재단 상담원) · 홍 상 욱(영남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정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 Y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이며, 총31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부의사소통, 모의사소통 각각 20문항씩 총40문항과 자아존중감 척도는 신종순(1990)의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재구성한 50문항을 구성하였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혜숙(2009)의 검증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총31문항과 사회인구학적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alpha$ 계수,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는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보통 이상 수준을 보였고, 하위요인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모-자녀간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정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고,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 정도는 청소년들이 가정·사회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아주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폭력, 절도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횟수는 아주 적음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폭력 절도형 행동은 가장 높은 반면, 권위반항형 행동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반면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학교 특히 성적비관, 학업부진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가정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